

POLITICS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이광일 도의회 부의장

13일 출판기념회 개최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사진)이 9월 13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저서 '절대로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1부 출판기념회와 2부 토론프로그램 구성돼, 저자의 삶과 정치적 가치관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절대로 정치하지 않겠습니다'에는 어린 시절 사고로 손가락 네 마디를 잃은 뒤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온 도전의 기록이 담겨져 있다. 기자 생활을 거쳐 도의원으로 서 걸어온 발자취, 여수와 도민을 위해 펼친 의정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이 부의장은 제9·11·12대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3선 의원이자 현직 부의장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광주매일신문 편집국 부국장 등을 지내며 언론과 정치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잘린 손가락에서 시작된 진심을 시민과 함께한 의정의 기록으로 남겼다"며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물품 개발 지원 결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어촌마을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식품개발 연구와 가공기술 지원 등이 결실을 보면서 어업인과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해남 임하 어촌계원들이 수확한 돌김을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동결건조 블록 형태의 '즉석 된장 김' 제품으로 개발해 어촌 마을기업 ㈜이마도에 기술이전, 제품화했다.

신제품은 지난해 큰 인기를 끌며 완판됐던 '즉석 간장 김'의 후속작으로, 돌김 고유의 풍미를 살리고 된장의 구수한 맛을 가미시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즉석 된장 김국은 이달 말부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산물 직거래 소평물 '바이씨(buysea.co.kr)'에서 판매되며,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제공된다. 또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통해 가공기술과 유통 역량이 부족한 어촌 마을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

목포지원에선 수산 식품 관련 신제품 개발과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특화지원센터는 생산, 유통, 경영 컨설팅을 전담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협력은 어촌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 목포지원에선 '전북조림 가공품 개발과 유통기한 연장 연구' △소비자 선호도에 맞는 반건조 생선 품질 개선 연구 △내수면 양식 활성화 위한 어묵제품 개발 등 어촌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은 과학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촌 마을기업에 맞춤형 수산물 개발, 기술 지원으로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휴일을 맞아 31일 전남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수목으로 물든 전남의 매력에 빠져 보자

전남수목비엔날레 개막...10월말까지 대장정 돌입

6개 전시관서 전세계 20개국 80여명 작가 작품 전시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인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29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을 열고 두 달여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수목비엔날레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수목 주제 국제행사로, 20개국 83명의 작가가 참여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목포·진도·해남 일원에서 펼쳐진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주한 외교사절단, 홍보대사 배우 김규리, 국내외 작가와 문화예술계 인사,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비엔날레 비전과 주제를 담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돼 김소라 명인의 타악 연주, 정가 공연, 무용수 박기광의 무대, 가야금 보컬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은 풍성한 감동을 선사했고, 이어진 라포엠과 댄스팀 홀리행의 무대는 현장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영록 지사는 "수목이 차세대 K-콘텐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목포·진도·해남이 세계 속 수목의 수도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갑 총감독도 "수목은 과거의 유산이 아닌 오늘의 언어로 호흡하는 예술"이라며 "이번 비엔날레가 전남을 세계 수목의 중심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목포문화예술회관, 남도전통미술관, 팜골순례문학관, 고산윤선도박물관 등 6개 전시관에서 진행되며, 학술심포지엄, 작가와의 대화, 아트버스킹 등 다양한 체험·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남도는 이번 수목비엔날레를 비롯해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

관 일원에서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술산업박람회,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까지 잇따라 메가 이벤트를 선보이며 가을 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형수 전남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올해 비엔날레는 전남의 수목을 세계 예술계와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전남이 가진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세계 속 남도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격돌 예고

검찰개혁·권성동·인청·3대특검법...곳곳 전운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언론·사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독주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 보이콧에 더해 장외 투쟁 카드까지 손에 쥐고 전면 투쟁을 예고해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대정부질문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내각의 각료 인선을 완료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로 문을 연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여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원민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

9일과 10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듣는다.

이어 정치·외교·통일·인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

부질문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지난주 각각 1박 2일 의원 워크숍과 연수를 가진 여야는 '개혁 완수'와 '대여 투쟁'에 무게를 싣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짰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25일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 개혁',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도 추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과 이재명 정부 부처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은 핵심 입법 과제다.

야당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에서 개혁입법 처리가 막힐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돌파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독주에 제동을 거는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전안함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 등을, 주병기 후보자는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이유로 각각 지명 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기조하에 100대 입법과제도 선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장내·장외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감행·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명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등 여당 견제용 법안을 추진한다.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에 맞서 기존 주주가 시세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차등의결권(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배임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과 세 부담 적정화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책읽는ACC



서창조망대

9월 광주, 독서·문화·예술·스포츠 '풍성'

광주 도심이 책과 예술, 축제, 스포츠가 어우러진 가을여행지로 꾸며진다.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9월 한 달 동안 책 관련 풍성한 행사가 펼쳐지고, 도심의 공원과 광장은 가을 피크닉 명소로 변신한다.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와 국제 문화예술축제도 연이어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대규모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진

결성전은 민주주의 상징 5·18민주광장에서 열려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한다.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엿볼 수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도 지난 달 30일 개막해 11월 2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펼쳐져 관람객의 발걸음을 머물게 한다.

광주 도시를 울리는 글로벌 음악축제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은 6일 사직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K팝부터 록, 재즈, 퓨전국악까지 다양한 음악

아시아문화전당·시창광장서 독서마당
세계양궁대회·디자인비엔날레 이어져

행되는 특별전 '봄의 선언'은 민주주의와 예술의 관계를 재해석한다.

국제적 아티스트와 창작자들이 참여해 융복합 전시, 퍼포먼스, 물입형 공연을 선보이는 아시아문화주간 'ACT페스티벌' (5~14일)이 열린다. 또 오는 27~28일은 '책 읽는 ACC'로 운영돼 전국 독립서점과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 아트마켓, 아시아문학포럼이 펼쳐진다.

무등·사직·산수도서관도 광주시립도서관도 9월 한 달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의 달' 행사를 선보이고, 6~7일 광주시청에서는 '빛고를 책마당(Read in Gwangju)'이 열린다.

5일부터 28일까지는 광주야 양궁의 열기로 가득찬다.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장애인 양궁대회가 국제양궁장에서 열리고

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다.

먹거리·예술·공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축제도 9월 한 달 동안 이어진다.

광주송정역 일원에서는 12~13일 '남도맛페스티벌'과 '도란도란 문화야시장'이 열리고 예술마을 양림동에서는 매주 토요일 '양림 아트 워크'가 진행된다.

광주예술의전당에서는 11~14일 합창·교향악·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연예술축제 '그라제'가 선보인다.

황룡진수공원에서는 20~21일 이들 동안 불꽃놀이·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진 '광산뮤직ON 페스티벌'이 열린다.

새롭게 조성된 서창 윈드&선셋(Wind & Sunset) 조망대와 나눔누리정원은 석양이 비치는 갈대숲과 황금빛 들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달 말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웹툰·애니 페스티벌' 116편 경쟁

창작자 공모전 대상 웹툰 윤인성팀·애니 삼심팔도씨팀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축제인 '웹툰·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열린 '2025 웹툰·애니메이션 페스티벌(WAF 2025, Web Animation Festival)'은 올해 21회째로 웹툰·애니메이션 분야의 창작자 발굴과 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대표 행사다.

'WAF 2025'는 창작자 공모전 시상식과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어워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제21회 창작자 공모전'은 웹툰 46편, 애니메이션 70편 등 총 116편의 작품이 참가해 창의성·작품성 등을 겨뤘다.

웹툰 일반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윤인성팀의 '죽봉 김태일'이 차지했다. 최우수상(광주시장상)은 최영일의 '눈부신 레슬러', 우수상은 전민주의

'용서해 삶'에게 돌아갔다.

애니메이션 일반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삼심팔도씨팀의 '뽕그리의 크리스마스'가 차지했다.

최우수상(광주시장상)은 김도현의 '키오스크', 우수상은 강창희의 'The Ultimate Goal of Life'에게 돌아갔다. 이들 수상작 18편에 총상금 2260만원이 지급됐다.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작자 공모전 시상식은 단순한 시상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멘토상담소'를 통해 수상자의 작품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조언이 제공됐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